

가계 빚 600조 육박... 가구당 3,730만원

은행권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수협 단위조합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판매신용)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2·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3월말보다 9조9천238억원이 늘어난 596조4천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농·수협·신협·금고 대출 급증

통계청의 2006년 추계 가구수(1598만8천599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3천730만원이다. 가계신용은 작년 2분기(15조8천161억원) 이후 급증세를 이어갔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지난 1분기(4조5천534억원) 증가폭이 둔화됐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2분기 5조6천565억원 늘어 전분기(1조2천679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4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은 4조3천939억원 급증, 2003년 3분기(4조9천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카드론 등을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도 전분기 895억원 감소에서 5천84억원 증가로 돌아섰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자금 대출도 8천242억원이 증가해 전분기(4천348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이 5천900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2조1천88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로 1분기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졌지만 신용협동기구의 비중은 16.5%로 0.6%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소비자들의 외상구매를 나타내는 판매신용은 전분기 2천936억원 감소에서 4천787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한편 관계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시가스 업체 33곳 부당약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운영중인 부당약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의 약관에 이어 도시가스 업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니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경쟁원리를 확산해야 할 규제산업 부문으로 에너지 업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최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토록 한 데 이어 도시가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7월초 20개 상호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현재 전국 151개 상호업체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구멍가게 파리만 날린다

5개월째 매출↓ 대형마트·편의점은 증가

대형마트·편의점의 증가로 소매업종 중 동네 구멍가게들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타종합소매업(편의점을 제외한 50평 미만 소형마켓)의 매출(경상지수)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감소했다.

흔히 동네 구멍가게로 불리는 기타종합소매업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증가율은 2월 7.6%에서 3월 -4.1%로 감소세로 전환한 뒤 4월 -6.0%, 5월 -1.0%, 6월 -7.8%, 7월 -5.1% 등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타대형종합소매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매출은 7월 5.2% 증가했고, 편의점과 체인화된 대형슈퍼마켓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2.1%와 3.7% 늘었다.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은 각각 올해 2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편의점은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동네 구멍가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이들 소매업종의 매출(경상지수)은 편의점이 7월 현재 417로 6년 7개월간 317% 증가했고, 대형마트는 264.9로 16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형슈퍼마켓(128.9)은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이 30%에도 채 못 미쳤고, 기타종합소매(102.3)의 매출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최근 내놓은 '도·소매업의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1995년 25개에서 2005년에는 316개로 연평균 28.9% 증가했고, 편의점도 같은 기간 1천557개에서 8천855개로 매년 평균 20%씩 늘었다. /연합뉴스



3,000만원짜리 황금 속옷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패션잡화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18K로 제작된 3천여만 원짜리 황금 속옷을 만져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까지 유명 '훈수예를 보석·주얼리 박람회'를 열고 황금 속옷을 비롯해 1억2천300만원짜리 진주 목걸이 등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패션잡화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18K로 제작된 3천여만 원짜리 황금 속옷을 만져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까지 유명 '훈수예를 보석·주얼리 박람회'를 열고 황금 속옷을 비롯해 1억2천300만원짜리 진주 목걸이 등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중견·중소기업도 일자리 없다

하반기 채용 규모 20% 감소

하반기 중견·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중견기업 1천명 미만인 상장 중견·중소기업 352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신입 및 경력직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채용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1%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중 43.8%(170개사)만이 채용을 준비하고 있어, 아직 채용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17.6%(62개사)가 전부 채용을 실시한다 해도 지난해 수준(79.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계획을 확정된 중견·중소기업의 채용규모는 4천688명으로, 작년 하반기의 5천866명에 비해 1천여명이 줄었다. 즉 일자리 5곳 중 1곳이 사라진 셈. 업종별로 1.6%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된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28.8%), 제조업(-26.6%), 석유화학 등 기타 제조업(-20.5%) 등의 업종에서 그 감소폭이 컸다.

채용 시기는 8월(15.9%), 9월(14.7%), 10월(14.1%) 순이었고, 수시채용과 미정인 기업도 11.2%, 27.1%에 달했다.

채용 직종으로(복수 응답) 사무직(31.9%)이 가장 많았으며, 기술직(27.1%), 영업직(16.5%), 연구직(13.8%)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외국인 지분 많을수록 "실적 좋네"

지분을 40%이상 41곳 순이익 9조3516억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금융업, 관리종목, 결산기 변경 등을 제외한 5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상인 41개 상장사들은 조사 대상의 7.7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은 9조3천516억원으로 전체의 41.76%를 차지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도 10.0%로 전체(6.87%)를 크게 웃돌았으며 부채비율은 52.97%로 낮았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의 영업활동에 따른 경영 성과가 탁월하고 재무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이 10% 미만인 상장사들은 334개로 조사 대상의 63.14%에 달하지만 이들 상장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1천58억원으로 전체의 9.4%에 불과했다.

매출영업이익률도 3.95%로 부진한 데 반해 부채비율은 109.36%로 높았다. 외국인 보유 지분율 상위 20개 상장사들 중에서 KTT&G(외국인 지분율 51.28%)가 상반기에 3천277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매출 영업이익률이 34.07%로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론스타 지분 51.02%, 63억달러에 매각

HSBC는 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인수가 내년 1월 31일까지 완료될 경우 63억1천700만달러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HSBC는 내년 1월31일 이후 거래가 완료될 경우 1억3천300만달러를 추가 지급기로 했다.

HSBC는 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승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취득 승인을 위한 정식 신청서가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론스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내년 4월 30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자동차 호조...8월 수출 312억弗

19개월 연속 증가율 두자릿수

8월 수출이 312억 달러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이상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행진을 이어갔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312억3천만 달러로 작년 8월에 비해 14.4% 늘어났고 수입액은 9.8% 증가한 296억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 8월 2억6천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5억4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8월 수출 호조를 이끈 것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이었다. 자동차는 지난해 8월 노사분규로 수출이 감소했던 데 따른 반작용으로 지난해에는 26억9천만 달러로 43.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일반기계(26억4천만 달러, 38.5%), 철강(22억2천만 달러, 30.3%) 등도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반도체(35억7천만 달러)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 강세 등에 비추어 증가율이 14.8%로 자동차, 기계 등에 비하면 증가율이 낮았고 정제시설 보수 등으로 수출물량이 줄어든 석유제품(22억3천만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었다. /연합뉴스

외환銀, HSBC에 팔린다

HSBC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외환은행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BC는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 지분 6.25% 전부터 일부를 HSBC에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외환은행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월드프림 | 예약실(예약상담), 영업기획부(행사진행·기획·영업)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06 | 010-9214-1898 |
| 삼성엔터 |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교사 채용 | 초대졸/경력무관 | 1400~1600 | 09/07 | 062-233-0063 |
| 정원교육문화 | [전남]영업/조직관리 경력사원 모집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07 | 062-226-0840 |
| HRN | [광주·목포]SK텔레콤 기지국 유지보수 및 최적화 | 초대졸/경력무관 | 1600~1800 | 09/07 | 062-529-2671 |
| 화인한천 | 일반사무(총무) 담당 여사원 채용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9/08 | 061-383-0345 |
| 동양생명보험 | 2007 하반기 자산관리사 공채 모집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10 | 062-226-4904 |
| 유오케이미디어커뮤니케이션 | 웹디자인 경력직 채용 | 고졸/경력1년 | 1600~1800 | 09/10 | 062-350-0071 |
| 삼성서비스 동광주지점 | 서광주 삼성서비스센터 접수사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9/11 | 062-525-9702 |
| 포스코 | 2007 포스코 기술연구소 연구원 모집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12 | 02-3457-1427 |
| 씨에이저널투션 | (주)5월SK텔레콤(광주) CRM센터 고객상담원 | 고졸/경력무관 | 2400~2600 | 09/13 | 02-456-9799 |
| 대원호텔 | 지하수 영향조사 및 토목 현장 | 초대졸/경력무관 | 1400~1600 | 09/14 | 062-942-9408 |
| 대원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및 제작, 산업기계 유지보수(오버홀)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14 | 062-941-6005 |
| 한국PF금융 | 하반기 대출 상담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14 | 062-460-2705 |

<광주지프코리아 512-6210 제공>

"내 주변에 '거품 인재' 있다"

직장인 67% "과대평가" 응답

직장인 대다수는 학벌 이상주의 등 때문에 실제 능력 이상으로 과대 평가받는 '거품 인재'가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836명을 대상으로 능력에 비해 과대평가 받는 '거품 인재'가 주변에 있는지 설문한 결과 66.7%가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거품 인재의 유형으로(복수 응답) '성과를 가로채는 암태형'(38.0%)과 '회색이 뛰어난 유형'(34.1%), '배경이 좋은 낙하산 유형'(32.4%) 등이 주로 꼽혔다. 거품 인재가 많은 직급으로 직장인 32.4%는 과장급이라고 답했으며, 대리급(22.6%), 부장급(18.6%), 임원급(15.6%) 등이 뒤를 이었다.

거품 인재가 생긴 원인에 대해 직장인 36.4%가 학벌, 학력 이상주의를 지적했으며, 객관적 업무평가 시스템이 없어서(26.7%), 인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17.5%)라고 답한 이도 있었다. /연합뉴스

저도주 열풍에 일새주 동참

보해, 알코올 도수 낮춰 출시

보해가 생산하는 소주인 일새주도 저도주 열풍에 동참한다. 보해양조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저도주 추세에 따라 일새주의 알코올 도수를 현 20.1도에서 19.5도 0.6도를 낮춰 4일부터 새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19.5도 일새주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일새주'의 서체 디자인도 부드럽고 세련된 형태로 변경됐다. 출고 가격은 360ml 1병당 839.36원으로 종전 20.1도 짜리와 같다.

보해 관계자는 "새 일새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춰진 외에도 초순도 주정 정제 공정과 숙성 촉진 공정 등에 새기술을 적용해 맛이 더 깨끗하고 숙성미도 더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9.5도 일새주를 '순한 소주' 경쟁에 가세시켜 현재 80%대인 광주·전남 시장 점유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그러나 과거 소주 도수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22도의 '천년 일새'는 지속적으로 생산, 판매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